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용처럼 여겨라.

한국신종교역사연구소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

승리신문 발행인 김종만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한국신종교역사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승리제단 창교자 조희성의 타계(他界) 후의 승리제단의 변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했다.

창교자 타계는 제단의 존폐 걸린 문제

김종만 발행인은 "신종교 역사에 있어서 창교자의 타계는 그 종교에 있어서 엄청난 변곡점이 된다. 특히 승리제단의 경우 있어서 제단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서 "승리제단 창교자는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강력히 영생을 주장했고, 세계공산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여 태풍을 막고,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풍년 들게 하며, 남북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5대공약을 신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도들은 창교자가 영생할 것으로 믿었고, 그 결과 그의 타계(제단에서는 보광이라고 표현함)는 신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탈퇴 신도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헌금을 돌려달라고 84억원에 달하는 현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사법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창교자 타계가 승리제단의 존폐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압축하여 설명했다.

발표자는 이어서 승리제단의 설립과정과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승리제단은 영육일체설이 핵심교리인데, 영육일체설이란 영과 육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기성 종교의 교리는 거짓말이고, 따라



발표자 김종만 승리신문 발행인(좌측)과 논평자 한강현 회장

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그는 지옥에 간 것"이라고 비신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충격을 받을 만한 교리를 그대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영육일체설에 따라 승리제단의 창교자도 사망하였으니 지옥에 간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논문 발표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논문 발표 내용 요약

승리제단의 경우 창교자의 보광(普光)은 교단의 존폐가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창교자는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라고 영생의 학문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영생을 자신있게 주장하였고, 자신 또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었기 때문에 신도들은 창교자의 죽음을 영생의 불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종교를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창교자가 보광하자 일부 탈퇴 신도들은 영생한다고 속여 헌금을 받았으니 사기라고 하면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하였다. 만일 사법당국이 그들의 주장을 인용했다면 아마 승리제단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도들은 창교자의 보광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 그 이유는 창교자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창교자는 보광 직전 또는 후에 살아 있는 모습을 여러 신도들에게 보여주었다. 첫째, 발표자(김종만 승리신문 발행인)는 창교자가 보광 직전 현신(現身)하여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병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거의 임종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창교자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분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둘째, 창교자의 처(해와주님) 또한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생시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의 것으로서 창교자는 꿈에서 사람들이 창교자가 죽었다고 말한다고 자신의 처가 말하자 자신은 죽지 않았으며, 사인불인전신강,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로서 분신으로도 변신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

을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다가 육신이 병들어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복할 때가 되어서 병원에 갔다"라고 정의하였다는 것이다.

창교자 생존 강력한 증거: 김로

창교자가 살아 있다고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김로이다. 김로란 창교자의 영으로서 영생의 양식이며 신비로운 조화를 부리는 주체이다. 김로가 보광 후에도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창교자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발표자는 자신이 찍은 김로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김로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가능성을 믿고 신앙하고 있다고 설명을 마무리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시간 부족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발표를 끝냈다.

발표후 논평자로 나선 한강현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회장은 "창교자가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호조건과 약조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하여 발표자는 원래 창교자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창교자의 사위가 이제 창교자가 노쇠하였으니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단에서 제명 처리한 적이 있으며, 창교자가 보광 전 2008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여 빛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세계 만민들이 승리제단에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게 되고, 앞으로 괴질이 돌면 창교자가 축복한 물을 먹으면 모든 괴질이 낫게 된다고 말씀한 예언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창교자가 만일 호의 호조건이었다면 반드시 2008년 예언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육신을 벗고 분신으로 역사하는 약의 호조건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미루어진 것일 뿐이며, 호조건과 약조건은 이러한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라고 답변하였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4>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몸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죄인의 마음을 갖는 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대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놀라서 죽는 것이다. 아무리

차가 빠르다고 해도 사람이 앞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다. 그때 놀라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까지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기는 삶

무능한 지휘관

피부에 약장이 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외상(外傷)보다 내상(內傷)이 더 무섭다. 이와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외적(外敵)보다 내적(內敵)이 더 무서운 설령을 해달라"고 주문하여 발표자는 원래 창교자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창교자의 사위가 이제 창교자가 노쇠하였으니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단에서 제명 처리한 적이 있으며, 창교자가 보광 전 2008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여 빛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세계 만민들이 승리제단에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게 되고, 앞으로 괴질이 돌면 창교자가 축복한 물을 먹으면 모든 괴질이 낫게 된다고 말씀한 예언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창교자가 만일 호의 호조건이었다면 반드시 2008년 예언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육신을 벗고 분신으로 역사하는 약의 호조건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미루어진 것일 뿐이며, 호조건과 약조건은 이러한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라고 답변하였다.*

무능한 지휘관이란, 능력이 아예 없는 자를 말하기도 하거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게을러 자신을 표출하기를 포기한 자를 통틀어 말한다. 또한 말과 행동이 어긋나서 휘하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를 포함한다.

자기 자신을 알고 판단할 만큼 되어도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아첨꾼들의 말에나 귀를 기울이는, 정말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처한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는 현명한 지도자이다.

지도자란, 기지(機智)와 임기응변(臨機應變)을 포함한 지혜(智慧)가 있어야 하며 다방면에 해박(該博)한 지식(知識)을 소유해야 한다. 누구를 다스리고 이

끌려면 남들과 같아서 안 된다. 남들보다 더 알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 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不斷)히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지휘관에 따라 오합지졸도 정예부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예부대라도 멍청한 지휘관을 만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그래서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낫다고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소경이면 그의 무리는 눈을 뜨고도 소경이 되고, 지도자가 귀머거리면 그 단체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도자의 영향력이란 이처럼 엄청난 것이다.

지도자에 따라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험산준령이 평지가 이루어, 사막에 실크로드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다. 지도자의 역량이란 지혜에서 비롯되고, 지식에서 발달되는 것이다.

이순신을 보라.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 질 것이 뻔한 싸움,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군의 패배는 곧 조선의 패배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군은 어땠는가? 무모하게 출정했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모조리 수장(水葬)시키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탁월한 지휘관은 싸울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지휘관이다. 나는 어떠한 지도자인가, 나는 지도자로서 합당한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자.*

1992. 9. 23 말씀

아담과 해와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내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죄도 있고, 내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있고, 고조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있고, 5대 조부, 6대 조부, 7대 조부, 8대 조부, 10대 조부, 20대 조부, 50대 조부, 100대 조부, 200대 조부, 500대 조부, 1000대 조부... 조상의 죄가 다 있는 거죠? 나만 없어도 조상 대대로의 죄가 짝 없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렇고로

내가 구원이면 조상대대로 다 구원이야. 그래서 이긴자 하나만 나오면 아담과 해와 조상 대대로 다 구원 받은 거야. 여러 분들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해와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의 조상이 구원 받았으니깐 여러분들 구원 받기가 쉬워, 안 쉬워?

이긴자 하나 나오면 조상 대대로의 마

귀의 영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속의 마귀만 죽이면 된다

이긴자 하나 나올 때는 조상 대대로의 죄를 다 이기고 이제 그대로 이긴자가 되는 고로 힘이 들었지만 이긴자 하나가 나오면 조상 대대로의 그 죄의 마귀의 영을 죽였으니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신의 죄만, 자신 속에 있는 마귀만 죽이면 구원이야, 구원 아니야? 구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승리제단만 나오면 50%가 이루어졌다. 승리제단에서 21일만 지키면 50%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말했던 거죠? 말만 그런 게 아니야. 논리상으로 이미 이제 조상 대대로의 그 죄를 다 해결한 고로 마귀를 죽여버린 고로 여러분들은 쉬워, 안 쉬워?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해와의 죄와 상관 있어? 상관 없어. 이미 아담과 해와는 구원을 얻었어.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이긴자가 됐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들이 대부분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은 자신 속에 있는 마귀만 이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가 되는 거죠?*

세미나 후 영육일체설에 대한 질문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총질문시간에서 호주국립대학교 데이비드 김 교수는 발표자들에게 각각 질문을 하였는데 김종만 발표자에게는 "영육일체설을 주장하는데 창교자의 죽음은 영육일체설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영육일체설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교리의 보편성에 안 맞아

사실 이 문제가 학술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제단에서는 지금까지 김삼욱 전 신도회장이 주장

한 대로 창교자는 완성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육일체설에 예외를 두어 창교자는 영육일체설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영육일체설은 승리제단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도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영육일체설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리가 발굴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세주 예배 말씀집

8

신간서적
승리제단 서구부

2001년 5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문 본문출판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8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